

國際環境 變化와 食品産業

宋 仁 相 / 韓國食品研究所 研究部長

1. 서 언

식품산업이란 원래의 성격상 내수산업적인 성격이 강한 분야이나 최근에 들어와서 가공식품 및 식품원료의 수출입이 대부분 자유화됨에 따라, 식품산업도 국제환경 변화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고, 따라서 국민 경제와 국민 보건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국제적인 주변 환경변화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장, 단기 대응태세 확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88년에 IMF 8조국 가입, GATT 11조국 이행으로 최소한 국제사회에서는 개도국으로서의 이익이나 국내 사정을 고려한 교역상의 비교역적 기능을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입장에 서게 되었고, 더우기 1989년 10월 GATT 국제수지 조항의 졸업 결정으로 1997년까지는 식품시장이 어떠한 형태로든 개방을 강요받게 되었다.

이 중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산물협상 진전내용을 보면 식품 원료 뿐만 아니라 가공 및 반가공의 전면적 개방을 예고하고 있고, 농산물협상 산하 '식품 및 동식물 검역 규제

및 장벽 작업단'에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단순한 소비자 관심차원의 검역규제를 금지할 예정이며, 미국, 불란서 등 선진 외국과의 쌍무 협상에서도 식품규격, 표시제도 등 비관세 장벽적인 요소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식품관련 규격의 변화도 중요한 국제환경요소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3억 2천만 인구의 유럽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EC 통합 역시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쟁 수출국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이다.

그러나 국제 환경의 변화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관여되고 있으며, 협상의 진전여부에 따라 상황이 급속히 바뀔 수도 있어 한 마디로 대응방안을 얘기할 수는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잃는 것에만 집착하여 피해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얻은 것도 잘 파악하여 이와 같은 환경변화를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2.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과 식품산업

가. 협상의 개요

1986년 9월 남미 우루과이의 Punta del Este에서 출범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GATT의 1948년 발족이후 1970년대까지 7차례의 포괄적인 다자간 무역협상이 있었고 1973~1979년에 개최되었던 제 7차 동경라운드 협상 이후의 제 8차 다자간 협상임)은 “국제교역에 있어서의 시장개방 확대”, “GATT체제 및 규율 강화”, “신분야에 대한 다자간 규범 마련을 통한 1990년대 및 2000년대의 세계교역질서의 강화”에 기본목표를 두고 15개 과제에 107개국이 참여하여 협상을 진행한 후 1990년 12월 3일~7일 브르셀에서 개최되는 협상장관 회의에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협상범위가 너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섬유, 지적소유권, 서비스 등 주요 협상과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와 특히 농산물분야 협상에서의 보조금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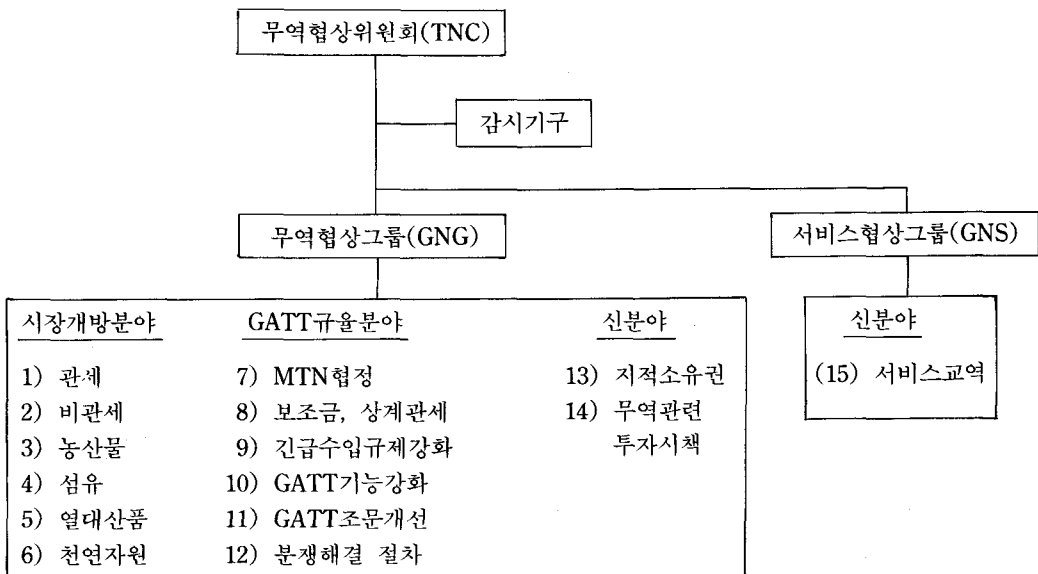
못하여 합의에 도달치 못하였다. 그러나 협상 실패시 세계 무역환경의 악화에 대한 협상국의 공통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협상 주도국인 미국과 EC간의 이견이 대부분 해소됨에 따라 1992년 초에는 협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체제와 협상분야는 표 1과 같다.

나. 농산물 협상의 개요

농산물 교역 장벽 완화를 통한 세계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와 보조금 사용 및 기타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GATT규범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농산물 협상은 식품 수출국과 식품 수입국 사이의 의견 대립이 가장 심한 부분이나 최근 미국, 일본, EC가 협상의 기본골격에 대해 상당한 정도 의견이 일치됨에 따라 조만간 타결이 예상되고 있다.

표 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체제



또한 농산물협상과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열대산품 (커피등 열대음료, 향신료류, 열대유지류, 담배, 쌀, 열대과실 및 견과류 등)의 교역시의 관세, 비관세의 장벽의 철폐 또는 감축을 통한 열대산품 교역의 완전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는 열대산품 협상도의 견대립은 있으나 타결이 예상되고 있다.

즉 상기 협상을 통하여 농산물의 가격 및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농업보조의 감축, 농산물(원료, 반제품, 완제품 포함)에 대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의 관세화를 통하여 농산물 교역 자유화 확대, 농산물의 무역 및 생산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출 보조금의 현저한 감축 및 각국의 식품 및 동식물 검역기준의 국제 규범화가 이루어지고 개도국 우대 및 식량확보 등 농산물의 비교역적 요소도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다.

이 중 농산물의 검역의 기술적인 비관세 장벽의 국제간 조화를 위한 식품 및 동식물 검역규제 및 장벽 작업단(Working Group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s and Barriers: WGSP)에서는 검역규정의 국제간 조화를 위하여 CODEX 국제식품 규격을 근간으로 사용하자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봄에 따라 국별 식습관의 차이 및 지역성·특수성의 인정여부에, 수입, 수출국간의 이견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관심(Consumer Concerns)을 근거로한 검역규제가 불가능해지고 앞으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CODEX 국제식품 규격의 수락도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 협상에 식량안보등 농산물의 비교역적 고려요소(NTC)가 반영되고, 국내 보조조치에 대한 허용범위의 확대 및 감축대상 보조조치의 충분한 감축시간을 확보하고, 농산물 수출국의 수출 보조금의

수입국의 국내보조금 및 국경 보호조치보다 빠르게 감축되도록 최대한의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식품의 원료, 반제품, 가공식품의 수, 출입 자유화는 급속히 진행될 것이고, 이와 함께 유통시장의 개방과 서비스 분야, 관세, 지적소유권 협상 등도 우리나라 식품 산업에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확실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부문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국내산보다 가격이 싼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양질의 제품을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 대기업은 식품 무역가공업에 진출할 수 있으므로 선진기술 습득이 가능하다.
- 식품 수출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다변화될 수 있다.

(2) 부정적 측면

- 기술의 낙후 및 원료공급에서 경쟁이 어렵다.
- 원료수입개방에 앞서 완제품 개방이 선행될 수 있으므로 품질 및 가격면에서 불리한 입장이다.
- 여러제품이 수입됨으로 제품의 life cycle 이 짧아져 제품의 개발 및 설비 투자비가 높아진다.
-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의 수입확대로 판매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판매비가 높아진다.
- 종합무역상사가 식품수입을 적극화할 것이다.
- 다국적 식품회사들이 직접 투자할 것이 예측된다.

- Royalty 인상이 예측된다.
- 원료의 국제가격이 계속 인상될 것이다.
- 각종 협동조합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제품 생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장 쟁탈전이 치열해 질 것이다.
- 원료 및 완제품 수입을 위한 자금 부담이 일시에 커질 것이며 국가의 자금 지원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라.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대응방안

(1) 식품산업체간의 공동 대응책 강구

- 식품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국내, 외 정보 수집을 위한 공동노력
- 대소비자 홍보 및 교육에 공동노력
- 경제적인 식품류의 수출 및 원료수입에 공동노력
- 식품류 제조에 관한 기초기술의 도입 공동노력
- 한국형 식품의 국제화를 위한 공동노력
- 식품의 물류 원활화를 위한 공동노력

(2) 식품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건전한 유대 강화 및 협력체제 강구
- 전문성의 극대화 및 소품목 다량생산 체제의 구축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도입과 자동화 등 시설 개선
- 연구개발 및 고급인력 양성에 투자 확대
- 한국형식품의 국제화 및 우리 기호에 맞는 향신료, 조미료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 신선도가 강조되는 식품에 투자
- 한국인의 식성에 맞는 전통식품의 가공식품화 추진

3. EC 통합과 식품산업

가. EC 통합의 개요

1957년 발효된 로마조약(Treaty of Rome)에 의해 시작된 EC 공동시장의 형성이라는 거대한 작업은 그 동안 국가간 이해 상충, 만장일치 방식에 따른 의사 결정의 지연 등으로 매우 부진하였으나, 1985년 제시된 시장통합백서(White Paper)와 1987년 7월에 발효된 단일 유럽법(Single European Act)에 따라 1992년을 역내시장통합 목표 연도로 설정하고 대단히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물론 앞으로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EC의 경제통합추진은 3억 2천만 인구의 유럽이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으로 형성된다는 기대감과 더불어, 작금의 세계경제에서 나타나는 쌍무적 보호주의와 지역주의 추세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유발하면서, 유럽시장을 하나의 배타적 경제권으로 요새화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EC 통합을 기업적 측면에서 보면 역내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물리적, 기술적 및 재정적 장벽의 제거하고 볼 수 있고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자본이동, 조세, 공공구매, 운송, 정보기술, 통신, 미디어 제조업 분야의 규격, 기업법, 지적소유권, 유럽통화제도, 공동연구 개발과제 등에서 통일된 제도, 규격등을 도입함으로써 상품, 노동, 서비스, 자본의 자유 이동이 가능한 완전한 공동시장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가맹국 상호간의 조화있는 발전과 광역시장권을 배경으로 한 영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공동체내의 제반 공동정책을 추진하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와 같은 EC통합은 EC역내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이와같은 변화는 직, 간접적으로 한국과 EC간 경제관계의 발전

방향에 영향을 주게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산업, 특히 식품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물론 EC통합에 따른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최선의 대응방안은 EC 현지에의 투자진출을 통하여 EC역내 기업들과 함께 EC통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대 EC 수출확대를 위하여는 기술적인 사항, 즉 식품관련 규정의 조화작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나. EC 통합중 식품분야

EC 통합중 식품관련 작업도 1993년을 식품의 자유로운 유통보장의 목표년도로 설정하고, 최근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성분규격 위주의 접근방법에서 골격 지침서(framework directive)의 위주의 조화방법의 채택에 따라 많은 부분에서 합의된 지침서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국과 EC지역간의 식품류 교역은 EC지역과의 거리, 식습관의 차이, 원료농산물의 가격상 경쟁력 부족 등 때문에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단히 미미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EC통합에 대한 식품업계의 관심 및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험의 축적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형편으로, 타분야에 비해 EC통합에 따른 지식과 정보도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식품류의 대EC수출확대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EC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위생상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수립을 위하여도 현재 EC에서 진행되고 있는 식품관련 규정의 조화작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즉 지금까지 합의되었거나 합의될 예정인

지침서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첨가물 분야
 - 1-1. 총 칙
 - 1-2. 향신료
 - 1-3. 추출용 용매
 - 1-4. 보존료
 - 1-5. 유화제, 안정제, 점증제, 겔화제
 - 1-6. 착색료
 - 1-7. 향산화제
2. 식품포장제 분야
 - 2-1. 총 칙
 - 2-2. 프라스틱 포장재의 검사
 - 2-3. 프라스틱 포장재
3. 표시분야
 - 3-1. 총 칙
 - 3-2. 증류주
 - 3-3. 식품의 단위가격
4. 식품의 공식 관리제도
5.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6. 특수영양식품분야
 - 6-1. 총 칙
 - 6-2. 조제분유 및 이유식
7. 식품의 개별규격분야
 - 7-1. 급속 동결식품
 - 7-2. 커피 추출물 및 치코리 추출물
 - 7-3. 과일쥬스류
 - 7-4. 잼류 및 밤푸레
8. 포장규격분야
 - 8-1. 액체식품의 포장단위 규격
9. 동식물 검역규격중 식품관련규격
 - 9-1. 식육중 잔류물 검사방법-기본원칙
 - 9-2. 성장촉진 호르몬 사용금지
 - 9-3. 시유의 제조기준 및 규격
 - 9-4. 계란제품의 제조기준 및 규격
 - 9-5. 식육제품의 제조기준 및 규격
 - 9-6. 제3국에서 수입되는 식육제품의 제조 기준

- 9-7. 에칠렌옥사이드 사용기준
- 9-8. 농약잔류 최대허용기준-곡물
- 9-9. 농약잔류 최대허용기준-동물성식품
- 9-10. 농약잔류 최대허용규칙(제안)-과채류

다. EC통합이 EC역내 식품산업에 미치는 효과

EC의 식품산업은 EC에서 중요한 산업분야의 하나로 대 EC국민총생산 점유비중은 4%로서(1985), 금액으로는 67억 EUC를 기록했고,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도 가지고 있지만 EC통합이후 치열한 국제경쟁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EC의 식품산업은 그 경제가치나 고용창출면에서 그 구주역내의 최대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동 산업분야를 리드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네슬러 2개사를 제외하면 미국기업이 세계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EC통합에 따라 식품, 위생기준등 EC 각국이 지니고 있는 많은 장벽이 제거될 경우 EC 식품제조업체들은 역내 타국으로의 진출이 용이하게 되는 장점과 함께 미국기업을 중심으로 한 역외기업의 진출도 예상되고 있어 EC통합시 치열한 국제 경쟁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EC 경제통합에 따른 EC역내 식품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역내에 존재하는 비관세장벽의 철폐에서 올 것이며 역내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별수입규제(29.4%), 상표부착과 포장(31.2%), 특정원료 사용금지(15.1%), 원료와 성분배합관련 규제(17.9%), 세제차이(6.4%)의 비관세장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비관세장벽 철폐의 직접효과는 연 5억~10억 ECU가량의 원가절감인데 이는 식품가공업체간의 총매상의 1~2% 또는 동산업 총 부가가치의 2~3%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외의 간접효과로는 역내 식품가공업체간 합병 매수를 통해 규모의 경제, 전문화, 학습효과 등을 바탕으로 한 EC차원의 기업형성 및 경쟁력 강화 그리고 소비자측에서는 상품의 다양화로 선택범위의 확대를 들 수 있다.

특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내 식품산업 구조 조정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며 1989년 기업합병 및 매수현황을 보면 식품분야가 101건에 70억 ECU로 모든 산업분야중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다. 특히 이와같은 산업구조 조성은 규모경제가 큰 식품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식품분야의 경우 마케팅 및 유통부문에서 생산규모 확대에 따른 개선효과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물품세의 통일은 담배, 주류의 가격인하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같이 EC 경제통합은 직, 간접적으로 EC역내의 식품산업에 영향을 주어 소비자측면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달성으로 인한 가격인하로 제품가격은 역내 최저 가격에서 형성될 것이며, 생산자측면에서는 각종 비관세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생산원가가 절감되고 기업이윤이 확대되어 국외국가들의 대 EC식품류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겠다.

라.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대응방안

EC역내 식품산업이 EC통합에 따른 비용절감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반하여 EC역내에 생산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경우, 이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식품류의 대 EC수출촉진 측면에서

보아도, EC통합에 따른 무역창출 효과는 그리 크지 못하는데 반하여, 역외교역이 역내교역으로 전환되는 무역전환 효과는 오히려 크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EC, 미국등 선진 외국에 비해 기술력의 저위, 원료가격의 경쟁력 부족, 수송기간의 장시간 소요, 식습관의 차이 등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출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1) EC지침서 및 입법화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우리나라가 EC에 식품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 표시,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 및 동식물 검역규정등이 역외국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자료수집과 대응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특히 EC통합에 따라 EC지역 식품의 수입이 오히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위생상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하여도 EC지침서 및 입법화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해외 교섭력을 확대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EC지침서 작성시 참여 또는 의견 제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투자유망업종 선정 및 투자전략 강구

우리나라 기업의 EC통합에 대한 최선의 대응방안은 EC역내 투자진출에 있으며, 이는 EC시장통합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뿐만 아니라, 수출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시장확보 및 시장 점유율 확대, 수입규제 회피, 신시장 개척, 신기술 습득 등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

지금까지 유망투자업종으로 지적된 분야 중 식품산업 분야에는 현재 수입규제가 되고 있는 양송이통조림, 최근 수출신장율이 높고 대 EC수출이 2,000만달러 이상으로 수입규

제가 예상되는 수산통조림류, 현재의 수입수요가 20억달러 이상인 품목(고기 및 식용잡육, 우유 및 크림, 치즈류, 신선한 갑각류 및 연체동물, 신선야채, 신선 또는 건조 과일, 기타 식용조제품, 포도주)중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가능한 신선한 갑각류 및 연체동물류가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전통음식중 건강지향적이라 할 수 있는 두부와 현재에도 많이 수출되고 있는 어묵류, 게맛살류의 생산을 위한 현지투자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물론 기업차원에서 해외투자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에는 경영환경, 생산환경, 규제적 환경, 법적 환경, 문화적 환경, 경제적 환경이 있으나 앞으로 EC통합이 이루어지면 각국별 시장성의 검토는 별반 의미가 없고 주로 생산과 관련된 요소에 중점을 두고 각종의 투자환경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의 검토항목에는 컨트리리스크 평가, 산업구조, 고용 및 임금구조, 금융환경, 에너지비용 및 기타 요소, 자유무역지대 운영실태, 투자장려 제도등이 있다.

그러나 식품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원료 의존적이며 유통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공해 발생 정도가 낮지 아니하므로, 실제로 현지 투자가 가능한지, 어떤 업종이 가장 유리한지, 더 나아가서 입지적 투자환경은 어디가 좋은가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4. 결론 및 정책건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국제환경 변화라는 격랑속에 처해 있으며, 1883년 인천개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와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식품산업체의 자구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식품산업이란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다는 측면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된 농, 수, 축산물의 가공을 통한 농어민 소득증대, 더 나아가서 생산된 자원의 이용도 제고 등 국익차원의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분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연간 약 100억불 이상의 교역이 이루어져 현재 수입이 가장 많은 에너지 분야를 능가할 교역대상품이 될 것을 고려하였을 때,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해외주요국에 주재식품관 파견
 - 해외시장 및 투자관련 정보 수집
 - 식품관련 입법화 등에 관한 자료 수집
 - 식품 위해요소 관련 정보 수집
 - 식품 수출시 애로사항 파악
- (2) 전통식품 및 한국형 식품의 국제화 지원
 - 전통식품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지원
 - 해외 식품산업과의 기술협력 추진
 - 한국식품의 해외 홍보 지원
- (3)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제도 및 관세제도 등의 개선
 - 사전 정보에 의한 검역 실시
 - 완제품 위주의 관세정책과 탄력관세의 적

극적 활용

- 산업피해 보상제도의 기능 강화
- (4) 관, 민 협력체 신설
 - 신속한 정보교환 및 대응책 마련
 - 수출, 수입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 방안 강구
 - 중소기업의 전문화, 효율화 지원방안 강구
- (5) 식품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지원
 - 금융, 세제상 지원으로 식품산업의 구조변화 유도
 - 국내 식품 규격의 국제화 추진
- (6) 식품위생법의 점진적 개정
 - 품목허가제도의 점진적 철폐
 - 식품공전의 성격 재조정-동일성 규격 및 권장규범으로 활용
 - 식품위생법상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마련

끝으로 오늘 식품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식품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민과 더불어 정부와 식품인이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식품산업이 국제화 시대에 발을 들여놓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